

태권도 재도약 · 지속 성장 견인

문체부-태권도 4개단체

미래발전전략 · 정책 발표

지변 확대 · 산업생태계 조성

위상 확립 · 지원 혁신이 목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1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태권도 4개 단체(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와 함께,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태권도계의 현안과 과제를 담은 10대 문화콘텐츠를 정책과제로 발굴해 2022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태권도의 재도약과 지속 성장을 견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태권도의 문화콘텐츠화'를 추진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실무팀을 통해 태권도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콘텐츠를 발굴했다.

또한 태권도 관련 단체, 학계, 언론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추진 특별전담팀(TF)'을 구성, 운영해 태권도가 나아가 할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들을 선정했다.

이후 태권도 수련생 및 학부모, 태권도학과 전공생 및 선수, 태권도 도장 운영자 및 지도자, 태권도산업 관계자 등과의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태권도계 현장 의견을 반영해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아동 위주의 도장시스템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더 이상의 수련층 확보가 어렵고, 종사자, 프로그램, 시설 및 기업 등 여러 측면에서 자생적인 산업 기반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지속 성장이 어렵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경쟁력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추진방안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전을 받고 있고, 태권도 모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과 지도력(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어 전략적 대응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태권도의 10대 문화콘텐츠'를 선정했다. 국회에서도 태권도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상징으로서 국가(國技)로 지정할 만큼, 태권도계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 동력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태권도로 열어가자는 건강한 세상,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설정

하고 ① 태권도 지변 확대, ② 태권도 산업생태계 조성, ③ 태권도의 위상과 정체성 확립, ④ 태권도 글로벌 리더십 강화, ⑤ 태권도 지원체계 혁신을 정책목표로 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평생 즐기는 태권도 ▲지속 성장하는 태권도 ▲자랑스러운 태권도 ▲세계와 함께하는 태권도 ▲신뢰받는 태권도를 제시하고 10개의 핵심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를 태권도 환경 변화에 맞게 보완해

가면서 태권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과 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도종환 장관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태권도 발전을 위한 많은 논의와 계획들이 수립되었지만 실행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며, "이번에 마련한 정책들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태권도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세부 내용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역도선수 육성 메카 진안서 男 대회 오픈

21일부터 6일간 진안문체체육회관서

역도선수 육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진안군에서 제66회 전국 춘계 남자 역도경기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의 신인역도 선수들과 지도자 등 30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진안문체체육회관에서 겨룬다.

진안군에서는 진안군청 역도부 이승준(105kg급)선수와 진안한빛고등학교 김선우(69kg급), 최행남(77kg급) 학생 3명이 참가하여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진안군은 2015년 4월 역도부를 창단한 이래 최근 3년간 각종 국내의 대회에 참가해 금 28개, 은 21개, 동 1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진안홍삼의 힘을 보여줬다.

진안군은 올해 초 약 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역도훈련장을 개관 해 선수들의 훈련여건을 개선했다. 훈련장은 22개 연습대와 역도기구, 역도 선수들의 체력을 단련 할 수 있는 핫플다운머신의 10종의 헬스기구와, 사무실, 샤워장(남/여)을 갖추고 있다.

이에 힘입어 진안군청 직장 경기부 역도 선수들은 올해 전국 대회에서 금 1개, 은 2개, 동 5개 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전국의 역도선수들이 이곳에서 동·하계 전지훈련을 통해 기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명실상부한 역도선수 육성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다.

진안군은 향후 전국 규모의 역도 대회 개최와 하계·동계 전지훈련 유치 등 지속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특산품인 진안홍삼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민 기자



청소년 절반 이상 “학업 탓에 평소 축구 못봐… 이번 월드컵은 응원”

“스포츠에 흥미 없어서” 응답 뒤 이어… 응원 계획 있는 청소년들 중 67.9% “가족과 함께 응원”

국내 청소년 절반 이상은 학업 부담 때문에 평소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잘 챙겨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 기간에는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응원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스마트학생복은 지난 1일부터 약 일주일

간 초·중·고교생 2606명을 대상으로 월드컵 인식·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1%의 청소년들이 평소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를 잘 챙겨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를 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1773명 중 약 31.5%가 ‘수업, 야자,

학원 등으로 인한 시정의 어려움’을 꼽았다. ‘스포츠에 흥미가 없다(22%)’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68%는 이번 월드컵 기간 중 응원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응원 계획이 있는 1773명 중 약 67.9%는 가족과 함께 응원할 계획

이다.

또 월드컵과 관련해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835명 중 약 31.9%의 청소년들이 ‘친구 및 가족과 함께 응원’하는 것을 꼽았다. 이어 ‘국가대표팀 성적’(22.0%), ‘월드컵 응원가 제작 및 관련 프로그램 방영과 연예계 활동’(20.1%) 등 순이다.

/뉴시스

전북교육감배 초·중·고 플로어볼대회 성료

제1회 전라북도교육감배 초·중·고 플로어볼 대회가 지난 16일에 전북기계공업고체육관(청룡관)에서 31개 학교 4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플로어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스포츠 종목으로, 하키를 변형한 경기다. 스틱과 볼, 그리고 골대만 준비하면 공간의 제약 없이 쉽게 즐길 수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북플로어볼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조별 예선리그 후 토너먼트 경기 방식으로 진행되고 골키퍼 1명, 필드선수 5명 등 팀당 6명씩 경기에 나섰다.

대회결과에 따라 초·중·고 남녀 각 1·2·3위팀은 전북교육감이, 우수지도자(3명)와 최우수선수(6명)는 전북플로어볼협회가 각각 시상했다. /김재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제5회 품바명인전 개최를 축하합니다.』

군민에게 믿음 주는 열린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장수군의회
http://council.jangsu.go.kr